

Q방법론을 활용한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탐색

고성희¹, 김명애², 박은아^{3*}

¹전북대학교 간호대학, ²계명대학교 간호대학, ³부경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types of gender role identity in middle-aged men using Q methodology

Sung-Hee Ko¹, Myung-Ae Kim², Euna Park^{3*}

¹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중년기는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수행 시기인 동시에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문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다. 성역할정체감은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므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있는 중년기 남성 40명을 대상으로 인간의 주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성역할정체감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UANL에 의한 주인자분석법으로 처리하였다.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은 '온정과목형', '과워소신형', '온정감성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은 전통적인 남성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과묵함과 소신과 함께, 시대적 변화와 발달 단계적 측면이 반영되어 타인에 대한 배려, 여유 및 감성을 보이는 여성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중년기 남성 대상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gender role identity within the Korean context with particular focus on how the changes within Korean society may have impacted on the gender role identities of middle-aged men. This research adapting Q methodology created a sampling distribution of P with 40 middle-aged men aged between 40-59 years old. Each of 40 Q samples were placed in a forced distribution of 9 scales. Secondary analysis of the results was then conducted by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using the QUANL PC program. Middle-aged men are likely to have traditional masculinity and newly developed femininity, such as caring for others and sensitivity. This means that a consideration of these characteristics needs to understand the gender role identity of middle-aged men.

Key Words : Middle-aged, Men, Gender, Role, Ident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40-59세 사이 중년인구의 비율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1995년 20%에서 2013년 30.2%로 증가하였다[1]. Liu 등 [2]의 연구에 따르면 40-59세 사이를 중년기로 보고, 이 시기는 생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고 대인

관계에서도 완숙된 시기에 해당하며[3],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년기 이후 성인의 발달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다[4].

중년기 남성은 개인적인 건강문제의 발생 뿐 아니라 직장, 가족관계, 경제적인 면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먼저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중년기 남성은 신체기능의 쇠퇴, 인지기능의 저하 등으로 각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4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Euna Park(Pukyong National Univ.)

Tel: +82-51-629-5785 email: soundness@pknu.ac.kr

Received March 25, 2014

Revised May 13, 2014

Accepted July 10, 2014

중 중앙관련 질환이나 우울, 분노, 불안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5]. 직장문제와 관련하여 중년 남성은 전통적 권위주의에 길들여진 상사와 젊고 패기에 찬 부하직원 사이에서 퇴직에 대한 긴장과 갈등을 겪고 있다[6]. 가족 관계 및 경제적인 면에서는 연로한 부모님과 자녀의 대학교육 및 독립, 결혼 등으로 가계의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7]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도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중년기가 갖는 의미는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남성들에게 있어 중년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해야 하는 흥미로운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제 3의 연령기[9]'라고도 불린다. 자아정체감은 사회에서 유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하는 등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일관성을 말하는 것[10]으로, 성역할정체감과 관련이 있으며, 성역할정체감이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다[11]는 측면에서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심리적 적응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역할정체감이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허용되는 남성성 및 여성성의 기대치가 개인의 인성적 특성으로 내면화된 일종의 자기 개념으로서, 개인의 태도와 사고방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12].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느낌, 생각, 견해 등과 같은 주관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개인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주관적인 견해에 기초를 둔 성역할정체감 관련 연구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남자 성역할정체감 관련 연구는 초등[13], 청소년[14], 대학생[15]과 특정 직업군[16-18]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고, 중년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양적 연구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성역할정체감의 일부를 특정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심층적인 이해에 제한이 있다. 또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중년기 남성의 다양한 역할과 인식을 파악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구체적인 간호중재와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중년기 남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Q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성의 구조를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속성을 유형화할 수 있고,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한 연구방법이다[19]. 따라서 행위자의 관점을 중요시하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을 Q방법론을 통해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중년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전략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의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을 이해하며, 이를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적응을 증진하기 위한 유형별 간호실무 지침 개발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중년기 남성의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한다.
- 둘째,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중년기 남성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2 표집방법

2.2.1 Q모집단 및 Q표본 선정

Q모집단이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느낌 또는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concourse)로서 문헌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하게 된다. Q표본(sample)은 Q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이기에 Q표본의 선정은 통합체가 완성되는 단계를 의미한다[20].

성역할정체감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므로[21]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Q표본은 한국인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한 자료와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박은아, 고성희, 김명애[22]가 작성한 것이다. Q표본은 남성성을 나타내는 20개 항목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20개 항목, 모두 4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2.2 P 표본

Q방법론은 양적연구와는 달리 사람이 변인이 되므로 P표본이 커지면 한 인자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소표본 이론을 따른다[20]. 본 연구에서는 P표본 선정 시 학력, 직업, 결혼상태,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하여 40-59세 사이의 중년기 남성 40명을 선정하였다.

2.2.3 Q분류

Q표본 분류 과정은 먼저 Q표본으로 선정된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40개의 진술문을 하나씩 읽은 후 주관적인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동의(+), 중립(0), 부정(-)으로 하되 각 항목들이 강제적으로 유사정상분포가 되도록 하였다. 분류가 끝난 후에는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에 대한 선택 이유나 느낌에 대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지 작성과 Q분류 및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었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료수집 전에 W 대학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CUMC09U037).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자의에 의한 참여로 연구가 이루어지며 익명이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언제든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서를 받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2.4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처리는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부정’하는 문항(-4)을 1점으로 시작하여 2점(-3), 3점(-2), 4점(-1), 중립 5점(0), 6점(+1), 7점(+2), 8점(+3), 9점(+4)으로 점수화하여 코딩 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QUANL PC Program을 이용하여 주요 인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위해

아이겐 값 1.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유형을 선택하였으며,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표준점수(Z-score)를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중년기남성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 참여한 중년기 남성은 총 40명으로, 연령범위는 40세에서 55세였으며, 학력은 대졸이 33명, 고졸이 7명이었고, 모두 기혼상태였으며,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30명이었다.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중년기 남성의 인식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Q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총 40명의 대상자 중 유형 1에 속한 사람은 11명, 유형 2에 속한 사람은 19명, 유형 3에 속한 사람은 10명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각각 요인들의 아이겐 값은 각각 8.9636, 5.2449, 1.8684이었으며, 각 요인의 설명 변량은 22.41%, 13.11%, 4.67%로 전체 변량의 40.19%를 설명하였다. 요인 간 상관관계는 .184 ~ .584로 나타났다. 각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요인 가중치는 Table 1과 같다.

3.1.1 유형별 분석

중년기 남성들이 지닌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인식은 Table 2와 같다.

3.1.1.1 온정 과묵형

온정 과묵형인 유형 1에 속한 대상자들이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감정을 숨긴다(Z=1.74)’, ‘의리가 있다(Z=1.51)’, ‘세심하다(Z=1.50)’, ‘이해심이 있다(Z=1.24)’, ‘남을 잘 위로한다(Z=1.15)’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로 자신이 자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 웬만한 일은 다 이해가 되기 때문(P11, 대상자11, 이하 대상자는 P로 표기),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 보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P7), 직장생활을 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P34), 친구나 동료 간에는 힘든 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의리를 지켜야하기 때문(P37)이라고 하였다.

반면 유형 1이 가장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수다스럽다(Z=-2.68)’, ‘공격적이다(Z=-1.86)’, ‘지배적이다(Z=-1.51)’,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 between Middle-Aged Men

Type	Id	Factor weight	Age (year)	Religion	Educational level	Dual income	Job	Health status	Sociality
Type1 (N=11)	6	.4762	45	Buddhist	Bachelor	No	Office	Healthy	Average
	7	1.2429	50	Buddhist	Bachelor	Yes	Office	Average	Average
	11	1.5740	47	None	Master	Yes	Office	Healthy	Average
	13	.4407	40	Protestant	Bachelor	Yes	Office	Average	Average
	15	.4850	44	None	Bachelor	Yes	Office	Healthy	Average
	17	.7100	44	None	Bachelor	No	Office	Healthy	Average
	22	.5105	52	Protestant	Master	Yes	Office	Very healthy	Average
	31	.4811	46	Protestant	Bachelor	Yes	Technical	Healthy	Average
	34	.5885	42	None	Bachelor	Yes	Office	Healthy	Sociable
	37	.7441	48	Buddhist	High school	No	Office	Average	Average
	39	.6942	51	Buddhist	High school	Yes	Office	Unhealthy	Average
Type2 (N=19)	1	.7672	48	None	Bachelor	Yes	Office	Average	Average
	2	1.3933	47	None	Bachelor	No	Office	Healthy	Average
	3	1.3591	49	Protestant	Bachelor	Yes	Office	Healthy	Average
	4	1.3682	41	Buddhist	Bachelor	Yes	Office	Average	Average
	9	.4713	52	None	Bachelor	No	Office	Healthy	Average
	10	.0410	41	Catholic	Master	Yes	Administrative	Average	Average
	12	1.1661	51	Buddhist	Master	No	Profession	Very healthy	Sociable
	14	.9053	43	Buddhist	Bachelor	Yes	Office	Very healthy	Average
	18	.9504	51	None	Bachelor	Yes	Office	Healthy	Sociable
	20	1.3583	47	None	Bachelor	Yes	Office	Healthy	Sociable
	21	.7829	46	Protestant	Master	Yes	Profession	Healthy	Sociable
	25	.2686	51	None	High school	Yes	Administrative	Average	Sociable
	27	1.1067	55	Buddhist	Master	No	Office	Average	Average
	28	.5221	40	Buddhist	Bachelor	Yes	Office	Healthy	Average
	30	.3400	45	None	Bachelor	Yes	Office	Average	Average
	32	.4518	47	None	Bachelor	Yes	Office	Healthy	Average
	35	1.0188	50	Catholic	Master	No	Office	Healthy	Sociable
	36	1.0002	49	Buddhist	Bachelor	Yes	Office	Average	Average
	38	.4325	40	Protestant	High school	Yes	Service	Healthy	Average
Type3 (N=10)	5	.7604	52	Protestant	Bachelor	Yes	Office	Healthy	Average
	8	.5701	44	Catholic	High school	Yes	Service	Healthy	Average
	16	.5650	46	Buddhist	Bachelor	Yes	Office	Very healthy	Sociable
	19	1.5065	45	Protestant	Bachelor	Yes	Office	Unhealthy	Average
	23	1.5023	42	Protestant	Bachelor	Yes	Service	Average	Sociable
	24	.8023	53	Buddhist	Bachelor	Yes	Office	Healthy	Sociable
	26	.9377	46	None	High school	Yes	Office	Average	Unsociable
	29	.8709	48	Catholic	Bachelor	Yes	Office	Average	Average
	33	.6410	44	None	Bachelor	No	Office	Healthy	Average
	40	.6252	43	None	High school	No	Office	Healthy	Average
						Type1	Type2	Type3	
Eigenvalue						8.9636	5.2449	1.8684	
Total variance			Variance			.2241	.1311	.0467	
			Cumulative variance			.2241	.3522	.4019	
Correlation factor			Type 1			1.000			
			Type 2			.393	1.000		
			Type 3			.584	.184	1.000	

[Table 2] Z-score and Q-statements Descriptions between Middle-Aged Men

Types	No	Q-statement	Z-score
Type1	10	Emotion conceal	1.74
	11	Faithful	1.51
	24	Delicate	1.50
	39	Understanding	1.24
	26	Soothe others well	1.15
	6	Broad-minded	-1.22
	23	Charming	-1.47
	16	Selfish	-1.49
	9	Dominant	-1.51
	2	Aggressive	-1.86
37	Talkative	-2.68	
Type2	8	Defends own beliefs	2.17
	14	Initiative	1.98
	11	Faithful	1.35
	13	Independent	1.28
	20	Dealing with serious matters well	1.26
	4	Assertive	1.17
	1	Acts as a leader	1.02
	32	Loving beautiful things	-1.09
	16	Selfish	-1.10
	34	Shy	-1.50
	40	Yielding	-1.55
	23	Charming	-1.62
	37	Talkative	-2.16
Type3	39	Understanding	1.88
	38	Tender	1.62
	25	Does not use harsh language	1.52
	27	Enjoying romantic things	1.47
	29	Patient	1.43
	28	Gentle	1.42
	36	Sympathetic	1.33
	21	Affectionate	1.25
	11	Faithful	1.07
	26	Soothe others well	1.01
	7	Competitive	-1.01
	9	Dominant	-1.04
	16	Selfish	-1.26
	17	Strong character	-1.34
37	Talkative	-1.4	
15	Makes decisions easily	-1.74	
2	Aggressive	-1.83	
Consensus	39	Understanding	1.35
	11	Faithful	1.31
	16	Selfish	-1.28
	23	Charming	-1.31
	2	Aggressive	-1.53

‘이기적이다(Z=-1.49)’, ‘애교가 있다(Z=-1.47)’, ‘대범하다(Z=-1.22)’ 등이었다. 이러한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로 마음이 여러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기 때문(P17), 어렸을 때부터 장남이니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대범하거나 수다스러울 수가 없었으며(P13),

현실적인 성향이라 남을 공격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P7)을 꼽았다.

따라서 유형 1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하며, 항상 신중해야 하므로 수다스럽거나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성향이 강하였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온정 과묵형’으로 명명하였다.

3.1.1.2 파워 소신형

파워 소신형인 유형 2에 속한 대상자들이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소신이 있다(Z=2.17)’, ‘추진력이 있다(Z=1.98)’, ‘의리가 있다(Z=1.35)’, ‘독립적이다(Z=1.28)’, ‘큰 일을 잘 처리한다(Z=1.26)’, ‘자기주장을 한다(Z=1.17)’, ‘지도력이 있다(Z=1.02)’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일이든 목표한 바를 반드시 달성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는 좀처럼 의심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이었다(P2). 사람은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하고, 옳은 일은 옳은 대로 일을 처리해야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P3). 무술을 하는 직업의 특성상 지도력이 필수적이고, 다소 경쟁적이고 상위의 레벨로 오르고 싶어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으며(P10), 일 진행시 시작과 끝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계획적이고 자신감 있게 추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P12)이라고 하였다.

반면 유형 2가 가장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수다스럽다(Z=-2.16)’, ‘애교가 있다(Z=-1.62)’, ‘순종적이다(Z=-1.55)’, ‘수줍어한다(Z=-1.50)’, ‘이기적이다(Z=-1.10)’, ‘예쁜 물건을 좋아한다(Z=-1.09)’ 등이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나 자신보다 주변사람의 의사를 존중하고, 타인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었으며, 본인의 외모를 개성이라고 생각하여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P9). 또 남자라면 조용히 소리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P14), 가능하면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고, 상충된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P20).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 목숨을 걸겠다는 마음이 없고, 조그만 이익보다 커다란 성공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P25).

따라서 유형 2는 일 처리는 소신과 추진력, 지도력을 가지고 해야 하며 남자이기 때문에 말이 많거나 수줍음을 타서는 안 된다는 성향이 강하였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파워 소신형’으로 명명하였다.

3.1.1.3 온정 감성형

온정 감성형인 유형 3에 속한 대상자들이 강한 동의를 나타낸 진술문은 ‘이해심이 있다(Z=1.88)’, ‘부드럽다(Z=1.62)’, ‘말을 곱게 한다(Z=1.52)’, ‘남만적인 것을 좋아한다(Z=1.47)’, ‘참을성이 있다(Z=1.43)’, ‘온순하다(Z=1.42)’, ‘동정심이 있다(Z=1.33)’, ‘감정이 풍부하다(Z=1.25)’, ‘의리가 있다(Z=1.07)’, ‘남을 잘 위로한다(Z=1.01)’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상대와 대화할 때 주변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시끄러운 말을 하기 보다는 논리를 가지고 설득력 있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을 들었다(P5). 성격이 감성적이라서 남들 앞에 나서서 것을 좋아하지 않고(P8), 대체로 심성이 온순하고, 참을성이 있어 타인과의 마찰이 없는 편이었다(P19). 또한 남의 감정에 쉽게 동조되고 분위기와 맛을 좋아하기 때문(P24)이라고 응답하였다.

유형 3이 가장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공격적이다(Z=-1.83)’, ‘결정을 쉽게 내린다(Z=-1.74)’, ‘수다스럽다(Z=-1.40)’, ‘성격이 강하다(Z=-1.34)’, ‘이기적이다(Z=-1.26)’, ‘지배적이다(Z=-1.04)’, ‘경쟁적이다(Z=-1.01)’이다. 이들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분란을 싫어하며, 서로 경쟁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P8).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신중을 기해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고(P24),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성격이 강하지 못해 남에게 내 주장을 못하는 편이었다(P26).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꼭 이루어야 한다는 야심이 없고, 주어진 환경과 시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다(P40).

따라서 유형 3은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에서는 이해심과 참을성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기보다는 평범하고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고 살기를 원하는 성향이 강하였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온정 감성형’으로 명명하였다.

3.1.1.4 유형 간 공통적인 견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각 유형마다 어느 정도 뚜렷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유형 간 공통적인 견해로 모든 대상자들이 가장 동의한 항목은 ‘이해심이 있다(Z=1.35)’, ‘의리가 있다(Z=1.31)’이고, ‘공격적이다(Z=-1.53)’, ‘애교가 있다(Z=-1.31)’, ‘이기적이다(Z=1.28)’에 대해서는 중년기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적응은 성역할정체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23].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여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적응 향상을 위한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은 세 가지 유형으로 ‘온정 과묵형’, ‘파워 소신형’, ‘온정 감성형’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유형별 특성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 1유형은 ‘온정 과묵형’이었다. 이 유형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있으면서도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감정표현은 절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남자로서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가정교육을 받아온 탓에 애교나 수다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온정 과묵형은 자신의 성격을 사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1명 중 1명으로 타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이들의 성장 배경 혹은 사회적인 문화가 반영된 특성이라고 사료된다. 대부분의 중년기 남성은 6.25전쟁 이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이거나 1968년에서 1974년 사이산업화가 시작된 시기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이다[24]. IMF 이후 시대적인 경제여건의 악화와 고용불안을 경험한 이들 실버층 진입 대기자들은 가장으로서의 역할긴장과 직업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높지만 이를 잘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25]. 이로 인한 중년 남성들의 부담감과 우울감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져 심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26]. Laszlo 등[27]은 유럽 16개국의 중년기 대상자를 중심으로 고용불안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고용불안이 관상동맥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과 같은 신체적인 건강문제와 우울감, 피로 등의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중년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고용과 관련된 불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사회 심리적·발달 단계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2유형은 ‘과워 소신형’으로 남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대한 소신과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이들은 남들과의 경쟁에서도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상충된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을 설득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중년기 남성의 경우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직업 지향성이 높고 직업스트레스는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 과워 소신형은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한 유형으로, 남편 혼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중이 세 유형 중 가장 높아 전통적 남성의 도구적 역할 인식이 가장 강한 유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성격이 사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도구적 역할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사교적일 필요가 있어 개발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erhofstadt와 Weytens[29]는 결혼생활에서 남성성을 가진 대상자는 도구적 역할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 가족부양 등의 책임감을 높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성역할정체감이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로 저 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서 부부만이 동거하는 빈 등지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4] 부부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적응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는 자녀를 매개로 하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다시금 부부중심의 삶에서 의미와 활기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30]. 배우자의 성역할정체감이 결혼상태 만족도나 부부의 상호의존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과워 소신형의 대상자들에게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배우자의 심리적 사회 문화적 맥락의 측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3유형인 온정 감성형은 대인관계나 업무에서 융화를 중시하여 양보와 감정이입을 잘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타인에 대한 공격이나 경쟁을 싫어하여 평범한 삶 속에서 낭만을 찾을 줄 아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타 유형에 비해 교육수준에서 고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온정 감성형의 사람들은 은유적 탄력성[31]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은유적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진리의 입증이나 과학적 엄밀성을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느낌과 발견, 공감에 더 의미를 두며, 평범한 삶의 세계를 특별한 방법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며[32], 이러한 특성은 평범함 속의 행복을 찾는 온정 감성형의 특성과 부분적으로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중년 남성의 성역할정체감 중에서 온정 감성형은 온정 과묵형과 과워 소신형에 비해 여성성이 가장 많이 반영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변화가 있었고, 이와 함께 자상한 남편,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을 요구받았지만 중년 남성은 자신의 변화에 필요한 적절한 롤 모델이나 역할 연습 기회가 없었다[33]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중년기 남성의 다양한 역할과 인식을 되짚고 남성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기와 중년기, 노년기를 아우르는 남성의 발달단계별 성역할정체감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남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역할정체감에 대해 중년기 남성은 이해심과 의리에 대해 공통적으로 긍정하였지만, 이기심이나 공격성, 애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청년기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외모를 중시한다고 한 결과[22]와 상반되는 결과로, 세대가 내려갈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등 다양한 성역할을 추구하며 구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성역할에서 탈피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나 의리와 같은 전통적인 남성성은 희석[34]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은 전통적인 도구적 남성성과 함께 과도기적 과묵형과 여성성이 강조된 감성형 등의 유형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는 아들로로서의 역할, 사위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등 가족 내에서 다중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성역할정체감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역할수행에 대해 남성과 가족원 모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심리적 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살펴보고 그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적응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가족 간 호중재 적응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 1유형은 온정 과묵형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뛰어나지만 자신의 감정표현은 절제하는 유형이었다. 제 2유형은 파워 소신형으로 자신의 목표에 대한 집중과 추진력이 뛰어난 전통적인 도구적 남성성을 나타내는 유형이었다. 제 3유형은 온정 감성형으로 대인관계에서 이해와 인내심이 강하며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유형이었다. 각 유형별 특성을 토대로 향후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 간호중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연대기적 성역할정체감 유형 비교를 통해 개별화된 적응증진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토대로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여성의 발달단계별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Population census data with population data of statistical year book", Retrived February, 10, 2014, from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2] K. Liu, L. He, X. Tang, J. Wang, N. Li, Y. Wu et al, "Relationship between menopaus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Chinese women: a cross-sectional study", BMC Women's Health, Vol. 14, No. 7, 2014. DOI: <http://dx.doi.org/10.1186/1472-6874-14-7>

[3] Y. D. Kim, "A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future plan of middle-aged salary me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2014.

[4] K. H. Kim, H. J. Jeong, "Narrative inquiry of couple identity among middle-aged men and women",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Vol. 20, No. 2, pp. 253-274, 2012.

[5] Y. T. Kim, W. H. Kim, D. S. Kim "Gender-sensitive budget analysis VI: Expansion strategies for depression screening",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0.

[6] W. K. Cho, J. R. Han, "Middle-aged male workers' attitudes toward job -civil servants and company employee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8, No. 1, pp. 43-61, 2009

[7] O. B. Jeong, "Adult and geriatric psychology", Seoul: Hakjisa, 2008.

[8] J. Yang, Y. Y. Shin, "Suggestion for family welfare programs for men's role change in family",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Policy Report, 2013.

[9] W. Sadler, "The third age: six principles of growth and renewal after forty",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2000.

[10] B. H.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n the family income, self-esteem, role adaptations, and identity formation of the married mid-life woman according to the state of employ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8.

[11] B. G. Park, P. S. Noh, "Adolescents' gender-role identity types and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6, No. 8, pp. 149-177, 2009.

[12] H. S. Jang, "The aggression scale for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4, No. 4, pp. 81-96, 2002.

[13] T. H. Moon, "Relations among elementary gifted children's gender, gender-identity, and overexcitabilities",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Vol. 20, No. 3, pp. 5-20, 2011.

[14] B. S. Jeong, "An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effect of domestic violence on male adolescents' patriarchal masculinity and violence",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2, No. 1, pp. 5-28, 2011.

[15] K. S. Kim, G. J. Cho, "Digit ratio(2D:4D) and gender role orientation in health and medical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5, pp. 2170-2177,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5.2170>

[16] J. M. Lym, S. M. Kwon, S. W. Lym, "Qualitative approach about gender-role identity of professional male dancers in modern danc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 51, No. 5, pp. 603-614, 2012.

[17] E. S. Ahn,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2010.

[18] J. J. Youn, H. A. Seo, "Analyzing creativity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 based on gender roles identity",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21, No. 2, pp. 191-200, 2010.

[19] S. J. Park, K. A. Kang, S. J. Kim, "Types of child rearing behavior of parents during early childhood: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3, No. 4, pp. 486-496, 201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3.43.4.486>

[20] H. K. Kim,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books, 2008.

[21] J. D. Sinnott, K. Sifren, "Gender and aging: Gender differences and gender rol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2001.

[22] E. A. Park, S. H. Koh, M. A. Kim, "Understanding the gender role identity among adolescent mal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Vol. 22, pp. 147-160, 2011.

[23] Y. A. Kim,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chinese middle-aged couple's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12.

[24]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alysis of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 baby boomer and echo generation", Retrieved December 21, 2013,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

[25] J. H. Park,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 aged males: A moder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33, pp. 1-20, 2012.

[26] W. G. Cho, J. R. Han, "Middle-aged male workers' attitudes toward job -civil servants and company employee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8, No. 1, pp. 43-61, 2009.

[27] K. D. László, H. Pikhart, M. S. Kopp, M. Bobak, A. Pajak, S. Maljutina et al., "Job insecurity and health: A study of 16 European countri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70, pp. 867-874, 2010.
DOI: <http://dx.doi.org/10.1016/j.socscimed.2009.11.022>

[28] J. R. Han, K. S. An, B. C. Oh, "The attitudes of middle-aged male workers toward their job and retiremen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2, pp. 599-613, 2010.

[29] L. L. Verhofstadt, F. Weytens, "Biological sex and gender role identity as predictors of spousal support provision: A scenario-based study", Journal of Gender Studies, Vol. 22, No. 2, pp. 166-177, 2013.
DOI: <http://dx.doi.org/10.1080/09589236.2012.745683>

[30] Y. B. Lee, "Society in family, family in society", Seoul: Yangseowon, 2008.

[31] H. Wolcott,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4.

[32] Y. S. Yang, "Narrative therapy", Seoul: Hakjisa, 2004.

[33] S. G. Lee, G. Y. Jeon, S. K. Kim, "The effect of work-father role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5, No. 1, pp. 35-49.

[34] Spence, J. T., & Hahn, E. D. (1997). "The attitude toward women scale and attitude change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1, pp. 17-34.
DOI: <http://dx.doi.org/10.1111/j.1471-6402.1997.tb00098.x>

고 성 희(Sung-Hee Ko)

[정회원]



- 198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이학석사)
-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이학박사)
- 1982년 4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노인간호

김 명 애(Myung-Ae Kim)

[정회원]



- 198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81년 1월 ~ 1996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1996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역할정체감, 중년, 수면, Q방법론

박 은 아(Euna Park)

[정회원]



- 1999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8년 3월 ~ 2011년 8월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2012년 9월 ~ 현재 :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역할정체감, 중년, Q방법론